

주요 노동동향

● 생산 및 물가 동향

◆ 2024년 1월 생산은 전월대비 0.4% 증가(전년동월대비 7.3% 증가)

-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 공공행정에서 줄었으나, 건설업, 서비스업에서 늘어 전월대비 0.4% 증가함.
 - － 전년동월대비로는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 모두 생산이 늘어 7.3%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통신·방송장비, 의약품 등에서 늘었으나, 반도체, 기계장비 등에서 줄어 전월 대비 1.4% 감소함(전년동월대비 13.7%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 등에서 줄었으나, 정보통신, 부동산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1% 증가함(전년동월대비 4.4% 증가).

◆ 2024년 1월 소비는 전월대비 0.8% 증가,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5.6% 감소

- 소매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1.4%), 승용차 등 내구재(-1.0%)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화장품 등 비내구재(2.3%)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0.8% 증가함(전년동월대비 3.4% 감소).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3.4%) 및 항공기 등 운송장비(-12.4%)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5.6% 감소함(전년동월대비 4.1% 증가).
-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12.4% 증가,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대비 46.1% 감소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기(월)대비, () 안은 전년동월대비)

		연간			분기				분기				월		
		2021	2022	2023p	2022				2023				2023	2023	2024
					1/4	2/4	3/4	4/4	1/4	2/4	3/4	4/4p	1월	12월p	1월p
생산	전산업	5.4	4.6	1.0	1.2	1.2	0.3	-0.7	0.1	0.6	1.0	0.7	-1.0	0.4(0.4)	0.4(7.3)
	광공업	8.5	1.0	-2.6	2.5	-2.2	-3.6	-4.8	0.4	2.6	1.3	2.1	2.3	-0.5(6.1)	-1.3(12.9)
	제조업	8.8	0.9	-2.6	2.3	-2.2	-3.7	-4.9	0.3	3.0	1.3	2.2	2.4	-0.6(6.6)	-1.4(13.7)
	건설업	-6.7	2.8	7.4	-1.5	1.5	1.5	4.3	2.8	1.1	1.1	-2.2	0.1	-2.9(-2.2)	12.4(17.6)
	서비스업	5.0	7.0	3.1	0.6	3.3	1.6	0.3	1.0	0.0	1.0	0.3	-1.0	1.1(0.9)	0.1(4.4)
소비	소비재 판매	5.8	-0.3	-1.5	-0.9	-0.7	0.8	-1.5	0.6	-0.5	-1.9	0.4	-0.8	0.6(-0.6)	0.8(-3.4)
투자	설비투자	9.6	3.3	-5.4	1.8	-1.5	9.6	-1.5	-8.0	1.0	-3.1	3.1	-4.3	2.3(-5.8)	-5.6(4.1)
물가		2.5	5.1	3.6	1.6	1.9	1.1	0.4	1.1	0.6	1.0	0.7	0.2	0.4(2.8)	0.5(3.1)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를 포괄함.
- 3) 2022년 이후 전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3년 2월, 2024년 1월, 2024년 2월 기준임.
- 5) p는 잠정치임.
-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
- 7)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2024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 상승(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6%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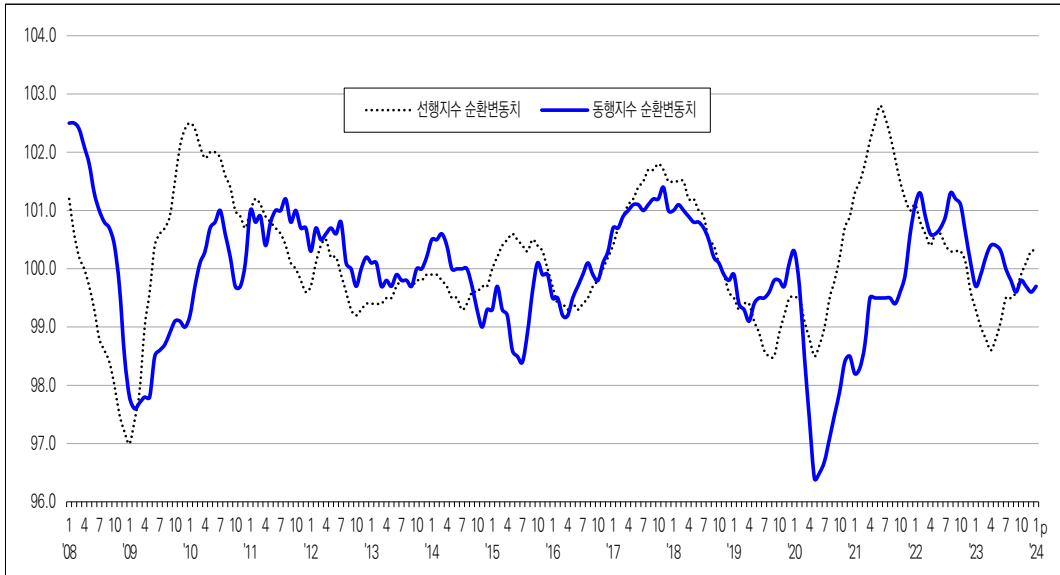
○ 2024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2020=100)로 전월대비 0.5% 상승함(전년동월대비 3.1%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1.4%), 교통(1.5%), 오락·문화(1.0%), 주택·수도·전기·연료(0.3%), 음식·숙박(0.3%), 교육(0.1%), 가정용품·가사서비스(0.2%), 보건(0.1%)은 상승, 의류·신발, 통신은 변동 없으며, 기타 상품·서비스(-0.1%), 주류·담배(-0.1%)는 하락함.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1.0% 상승,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0.4% 상승하여 전월대비 0.6% 상승함.

◆ 2024년 1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4% 증가,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3% 증가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상승함.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보합.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 1) p는 잠정치임.
 2)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동행지수는 2020년=1000이 기준.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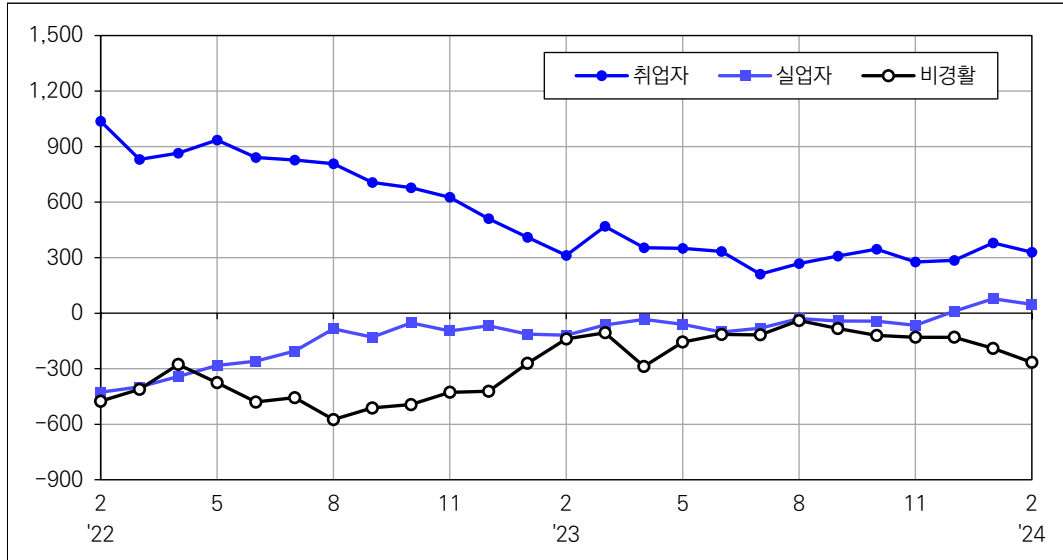
(이기쁨,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고용 동향

◆ 취업자 증가와 실업자 감소로 양호한 고용 지표 흐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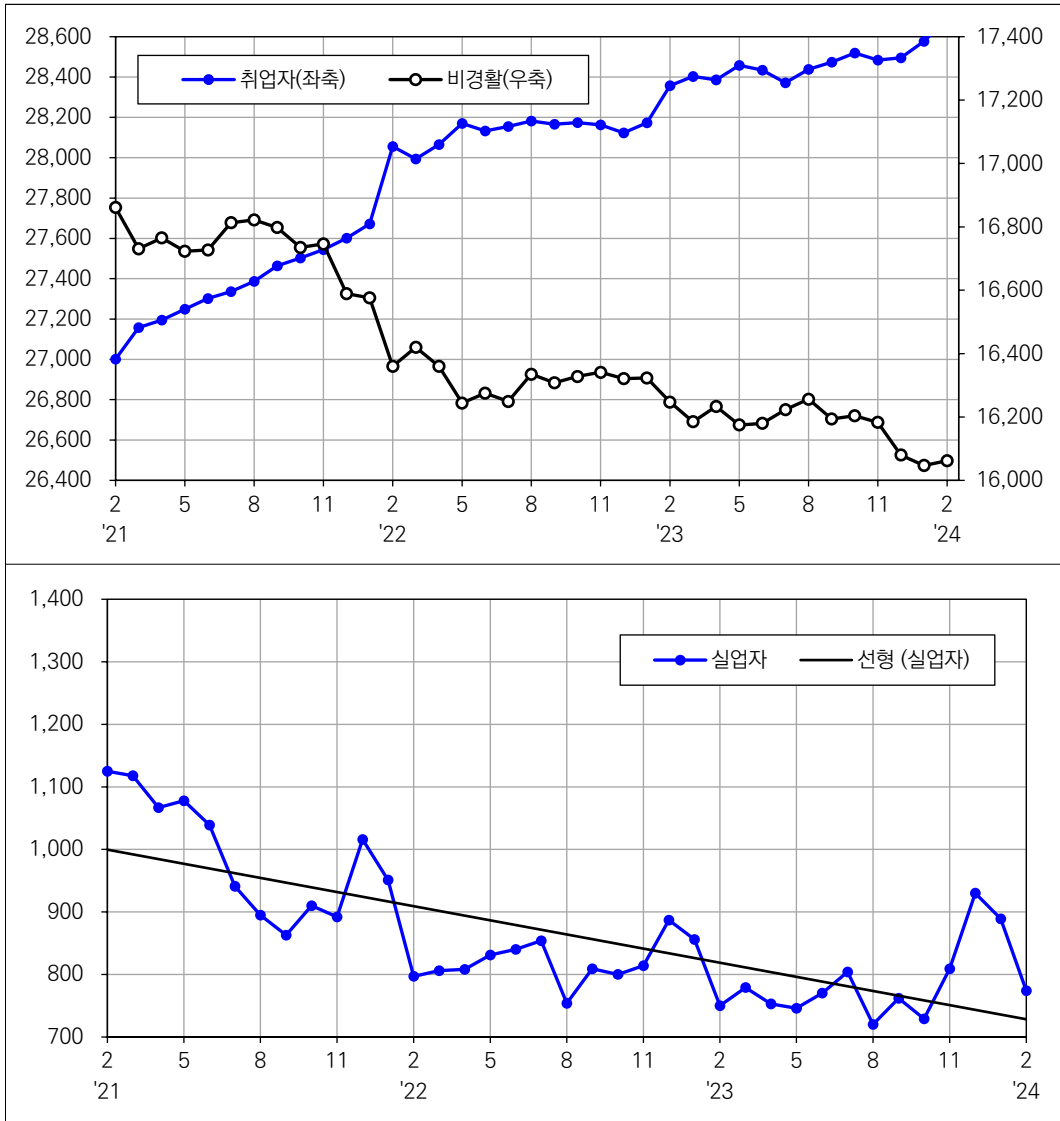
- 2024년 2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2만 9천 명 증가하였음(전월대비¹⁾ 11만 3천 명 증가).
 - (산업별) 2월 제조업은 고용이 부진한 흐름이 지속됨. 서비스업은 공공행정, 보건사회 복지 등 사회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업의 고용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증가는 둔화됨.
 - (연령별) 전월대비 40대에서 취업자가 감소함.
 - (종사상 지위별) 전월대비 임시직 근로자가 증가함.
 - (실업자) 전년동월대비 2월 실업자는 2만 5천 명 증가하였으나 1월 대비 증가폭이 둔화됨 (1월 +4만 8천 명). 전월대비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에서 실업자가 감소함. 구직단념자는 소폭 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 전년동월대비 2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8만 3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줄어들음(1월 -26만 7천 명).

[그림 1] 원계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증감 현황(상) 및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중), 실업자(하) 변화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그림 1]의 계속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4년 2월은 전월대비 40대에서 취업자가 감소하였음.

- 전년동월대비 40대 초반 남녀 모두 고용률이 양호한 반면, 40대 후반 남성 고용률이 감소하였음. 40대 후반 남성은 제조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함.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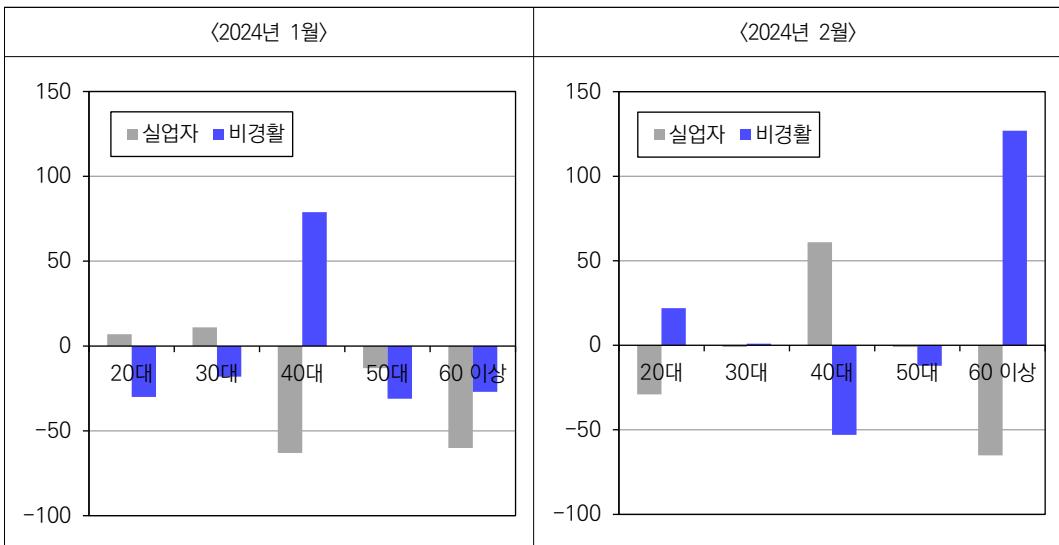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15~19세				20대				30대			
	12월	1월	2월	(전월비)	12월	1월	2월	(전월비)	12월	1월	2월	(전월비)
취업자	-22	-38	-31	(7)	-51	-48	-29	(19)	64	86	70	(-16)
실업자	1	-6	4	(10)	8	5	-32	(-37)	19	19	26	(7)
비경황	34	24	27	(-18)	-136	156	-163	(19)	-122	-118	-135	(13)
실업률	1.1	-1.1	3.8	(4.9)	0.3	0.1	-0.7	(-0.8)	0.3	0.2	0.4	(0.2)
고용률	-1.1	-1.6	-1.4	(0.2)	1.0	1.2	1.5	(0.3)	1.4	1.4	1.1	(-0.3)
	40대				50대				60세 이상			
	12월	1월	2월	(전월비)	12월	1월	2월	(전월비)	12월	1월	2월	(전월비)
취업자	-19	-41	-61	(-20)	34	71	83	(12)	279	350	297	(-53)
실업자	-12	-2	-6	(-4)	15	-2	-4	(-2)	46	35	36	(1)
비경황	-112	-91	-95	(20)	-9	-18	-38	(-2)	156	94	7	(49)
실업률	-0.2	0.0	-0.1	(-0.1)	0.2	0.0	-0.1	(-0.1)	0.5	0.2	0.4	(0.2)
고용률	1.2	0.8	0.6	(-0.2)	0.0	0.4	0.5	(0.1)	0.5	1.1	0.6	(-0.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 연령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계절조정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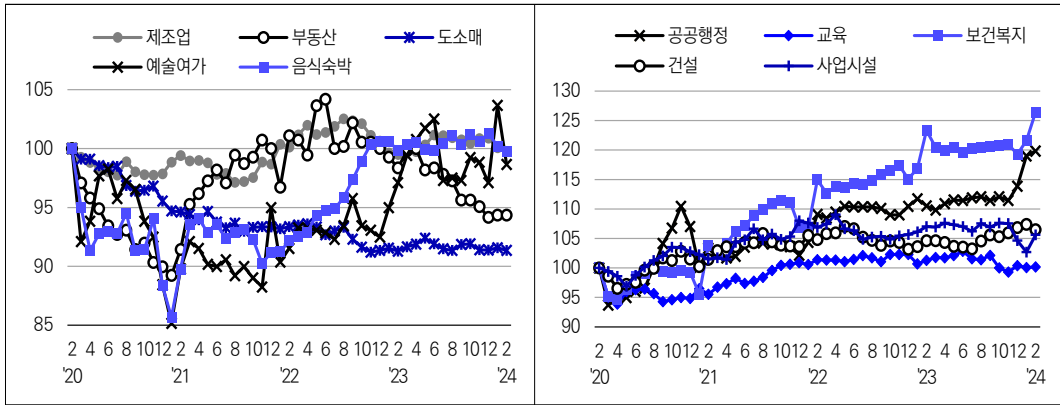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전월대비) 산업별로는 보건복지, 공공행정 등에서 증가하였으며, 예술여가와 건설업에서 취업자가 감소하였음.

[그림 3]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계절조정계열, 2020년 2월을 100으로 정규화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 (계절조정계열)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증감	증감률
농림어업	-25	-7	-33	-24	18	-33	-39	-2.6
광업	1	-1	1	-1	-1	1	-1	-12.5
제조업	10	20	38	1	-36	12	-23	-0.5
전기·가스·증기	6	9	9	0	4	4	8	8.8
수도·원료재생	-3	0	-5	-1	-3	3	-1	-0.7
건설업	71	73	36	18	11	-18	11	0.5
도매 및 소매업	0	0	2	-1	7	-8	-2	-0.1
운수 및 창고업	27	66	54	-9	13	9	13	0.8
숙박 및 음식점업	17	-8	-2	15	-24	-10	-19	-0.8
정보통신업	87	49	80	21	-7	34	48	4.6
금융 및 보험업	1	-13	1	-1	6	0	5	0.6
부동산업	-32	-28	-21	-5	1	0	-4	-0.8
전문·과학·기술	47	73	78	-23	18	11	6	0.4
사업시설관리지원	-14	-45	-19	-39	-26	39	-26	-1.8
공공행정·사회보장	34	71	98	27	57	9	93	7.5
교육서비스업	-35	-13	-22	20	-6	2	16	0.9
보건 및 사회복지	94	104	72	-40	55	115	130	4.5
예술·스포츠·여가	23	42	8	-9	34	-26	-1	-0.2
협회·단체·수리·기타	-5	8	-21	7	8	-19	-4	-0.4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15	-18	-23	8	0	-3	5	7.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2024년 2월은 전월대비 상용직과 임시직이 증가하였음.
 - 상용직은 사업관리지원에서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음식숙박과 보건복지에서 감소로 전환하였음. 임시직은 제조업과 음식숙박업에서 증가하였으며, 예술스포츠업은 감소함. 일용직의 경우 보건복지에서 증가하였음.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상용직	390	320	357	4	-34	43
임시직	11	137	207	-47	44	229
일용직	-69	-82	-177	24	-34	-49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45	30	38	-16	2	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	-41	-1	-60	-25	13	-39
무급가족종사자	-50	-25	-36	-26	16	-1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농림어업	3	6	10	2	2	2	-8	1	-8	0	5	0	8	7	-7
제조업	-17	-30	8	2	7	27	8	13	0	14	15	8	4	13	2
건설업	35	44	35	20	16	25	-19	-27	-56	15	15	21	16	19	8
도소매	64	71	65	-58	-30	-24	3	-14	-9	-5	-17	-15	-15	-18	-19
운수창고	27	37	44	13	23	15	-15	-11	-11	8	7	4	-4	12	0
음식숙박	14	4	-21	34	8	50	-2	-11	-37	13	10	13	-25	-13	-5
정보통신	44	21	44	26	23	29	0	-1	-1	2	2	-1	16	5	11
금융보험	-19	-19	-18	15	3	17	-1	0	0	1	-1	-1	4	3	2
부동산	-13	-12	-14	-17	-23	-19	-1	3	1	5	3	7	-8	-1	3
전문과학기술	66	89	99	-4	-6	-4	-6	-3	-7	7	11	8	-19	-20	-17
사업관리지원	24	-6	12	-16	-10	13	0	-8	-25	-9	-15	-8	-8	-3	-9
공공행정	22	47	63	13	28	39	-1	-4	-4	-	-	-	-	-	-
교육서비스	40	29	25	-57	-39	-48	-8	3	5	0	1	1	-6	-6	-3
보건복지	58	16	-14	40	90	82	2	4	10	-10	-9	-4	3	3	-1
예술스포츠	15	14	17	16	31	1	-6	-10	-9	0	1	1	-1	5	-5
협회단체	11	-4	-9	7	28	19	-12	-7	-14	1	0	4	-10	-6	-20
가구 내 고용	2	-1	1	-18	-12	-15	0	-7	-0	-	-	-	2	1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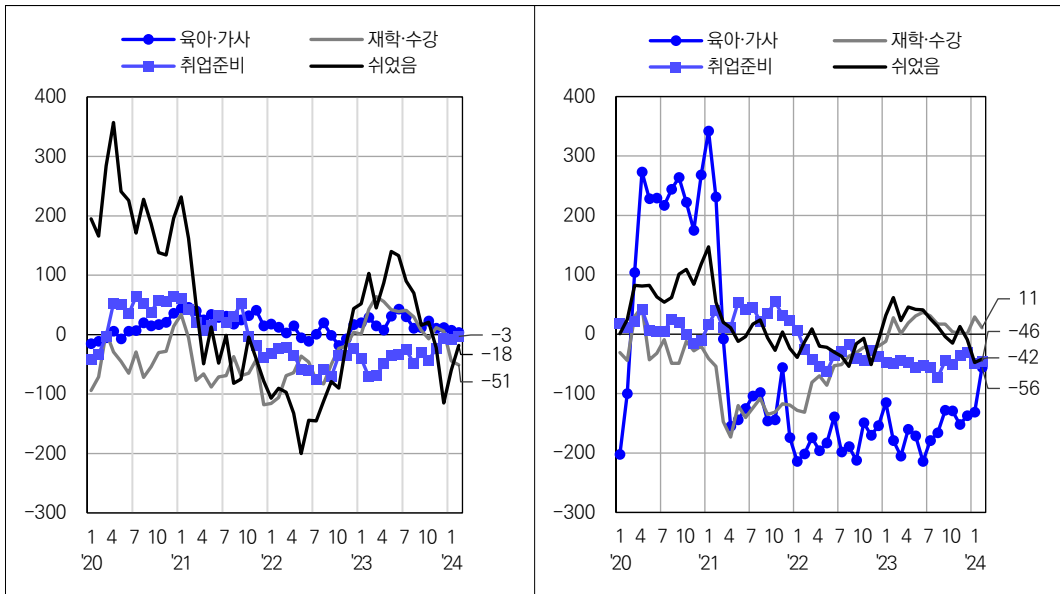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8만 3천 명으로 감소폭이 줄어들.

- 남성은 전년동월대비 -8천 명으로 '쉬었음'(-1만 8천 명)에서 감소폭이 줄어들었고, 여성은 -17만 5천 명으로 '육아가사'(-5만 6천 명)에 감소폭이 줄어들.

[그림 4] 성별(남자 : 좌, 여자 : 우)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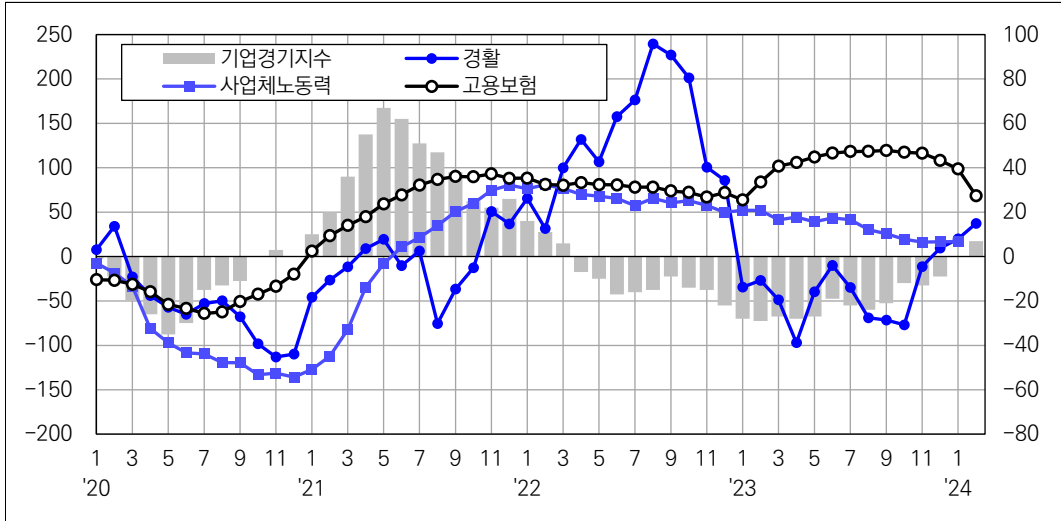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 소폭 확대,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세 소폭 둔화

○ 2024년 2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만 8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으나, 2024년 1월 이후로 두 자릿수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져 기저영향이 있을 수 있음(1월 +2만 명).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외국인을 제외하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사업체 종사자 수도 증가폭 축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월대비 1만 2천 명 증가하였음.

[그림 5]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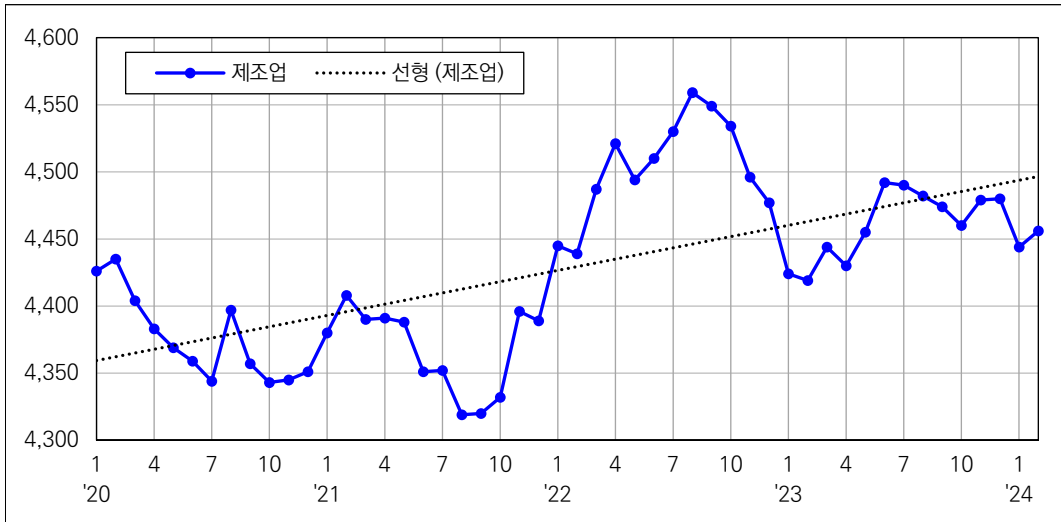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6]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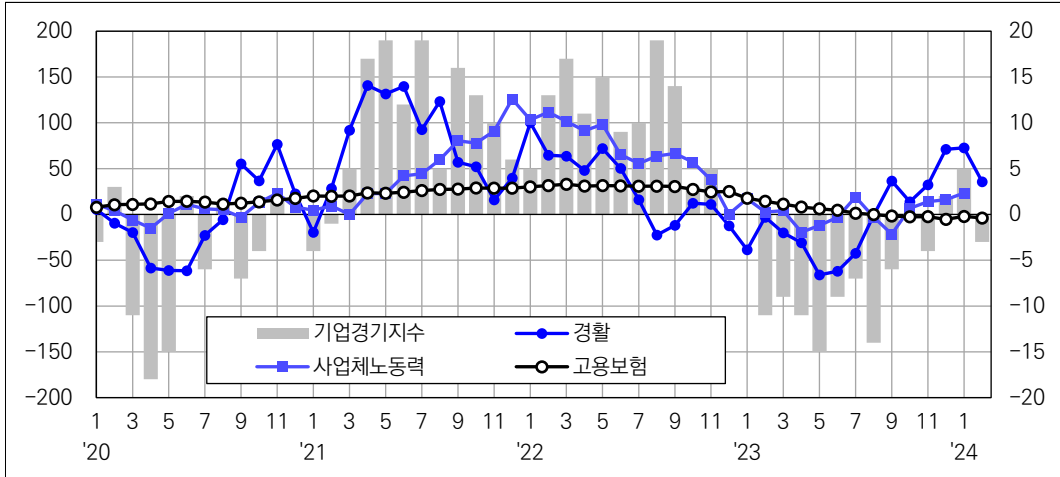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4년 2월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만 6천 명 증가하여 증가세가 둔화됨.

- 건설업 피보험자는 6개월 연속 감소 중이나, 사업체 종사자는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경찰 취업자는 증가폭이 축소되었음.

[그림 7]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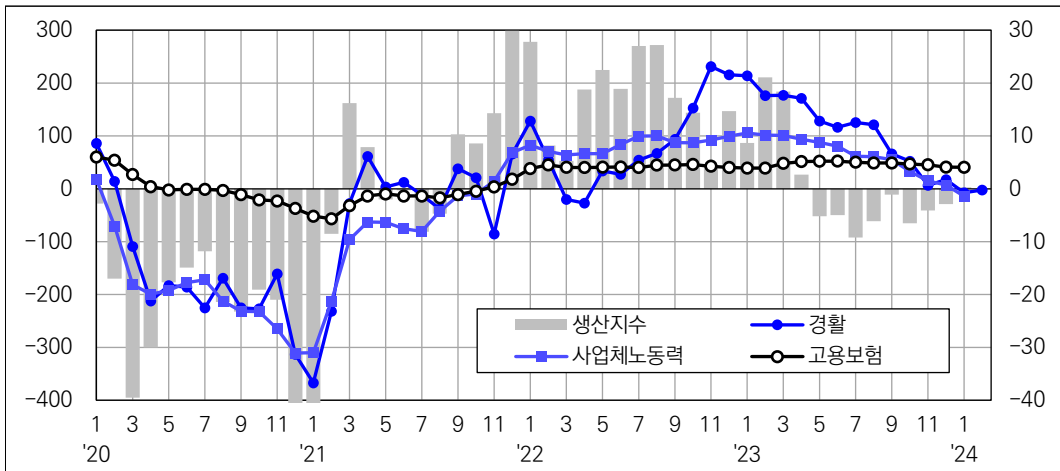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4년 2월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28만 7천 명 증가하여 증가세가 소폭 둔화됨(1월 +31만 명).

- (숙박음식) 경찰 취업자가 감소로 전환하였으며 생산지수는 정체됨.
- (정보통신) 경찰 취업자는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폭은 둔화됨.
- (교육서비스) 경찰 취업자는 감소폭이 확대됨.
- (보건복지) 경찰 취업자는 감소폭이 확대됨.

[그림 8]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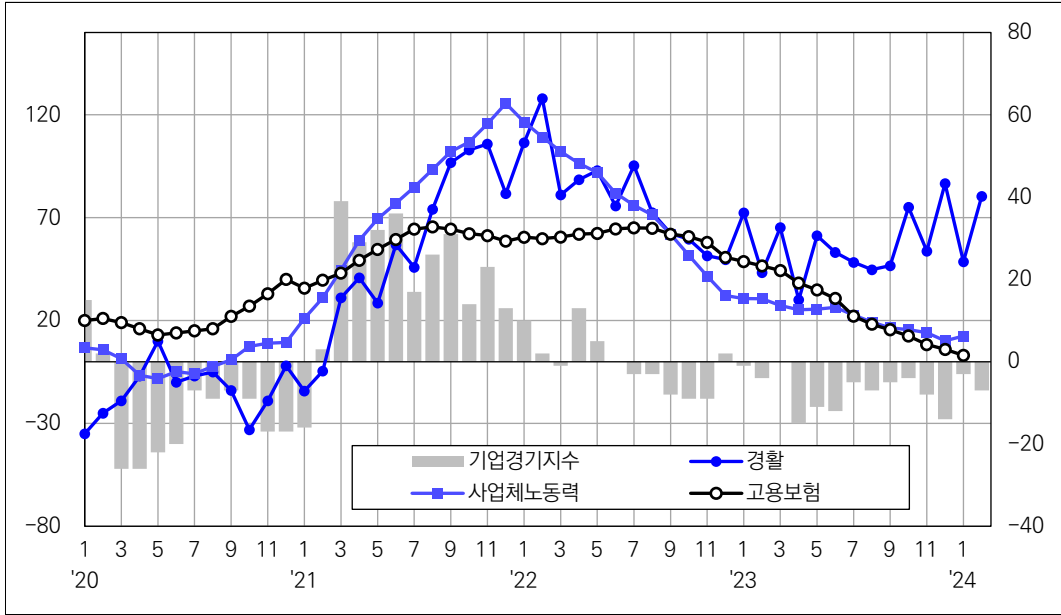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9] 정보통신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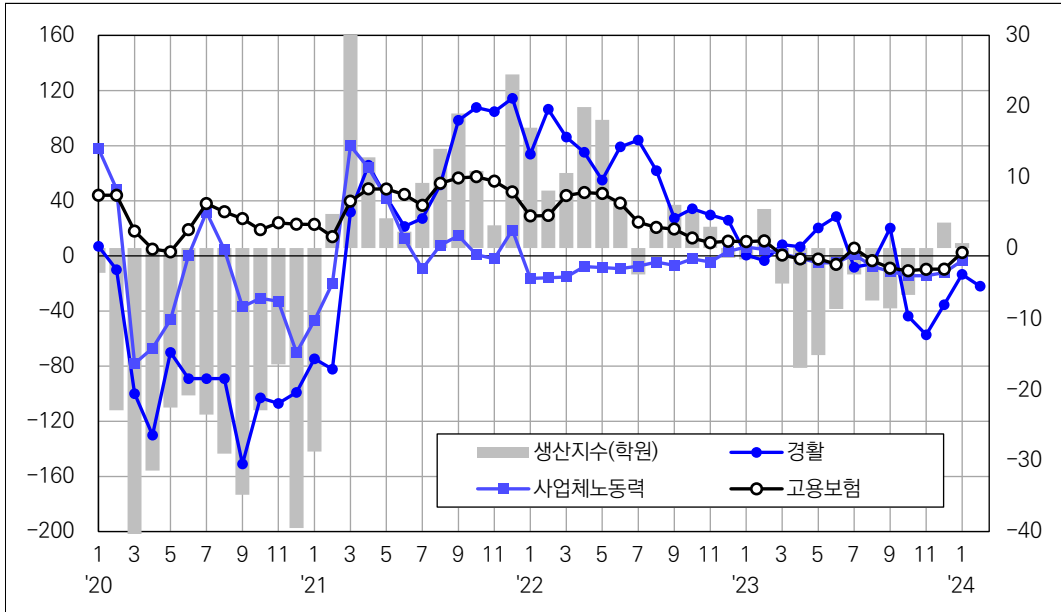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0] 교육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학원)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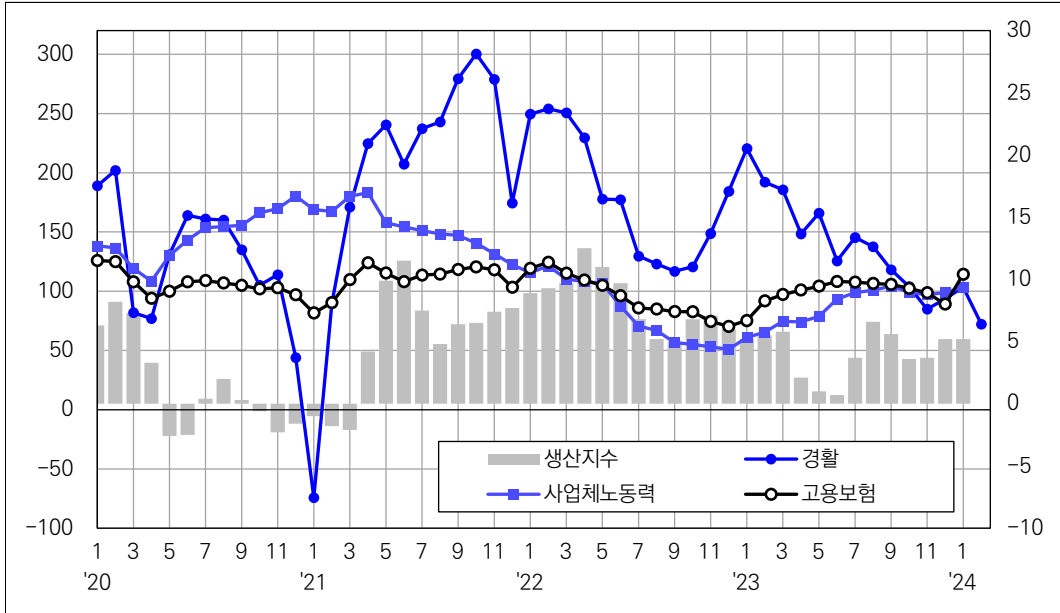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황지영, 동향분석실 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23년 12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과 유사한 수준

- 2023년 12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43만 3천 원(0.0%)임.
 - 2023년 12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472만 2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1% 증가, 임시일용 근로자 임금총액은 186만 8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8% 증가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 증가폭 둔화는 정액급여증가율 둔화와 특별급여 감소 영향이 큼. 상용 근로자의 특별급여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함. 특히 도매 및 소매업(-35.8%p), 운수 및 창고업(-29.5%p) 등에서 전년도 증가했던 기저 등으로 특별급여가 크게 감소함.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23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2020=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1% 감소함.

◆ 2023년 연간 명목임금상승률은 전년대비 2.5% 상승(-2.4%p),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상승률은 1.1% 하락(-0.9%p)

◆ 2023년 11월 협약임금인상률(4.5%, 임금총액 기준)은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

- 민간부문의 협약임금인상률은 4.6%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 공공부문은 2.2%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함.
 - ※ 협약임금인상률은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전사업체(농업, 수렵업, 임업, 어업,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국·공립 초·중·고 교육기관은 제외)를 대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교섭에 따라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급여 등 변동성 급여를 제외한 임금인상률임.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20=100.0)

	2019	2020	2021	2022	2022		2023	
					1~12월	12월	1~12월	12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490 (3.4)	3,527 (1.1)	3,689 (4.6)	3,869 (4.9)	3,869 (4.9)	4,434 (3.0)	3,966 (2.5)	4,433 (0.0)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702 (3.1)	3,719 (0.4)	3,893 (4.7)	4,095 (5.2)	4,719 (3.1)	4,211 (2.8)	4,722 (0.1)
	정액급여	3,010 (4.1)	3,077 (2.2)	3,181 (3.4)	3,319 (4.3)	3,319 (4.3)	3,524 (4.5)	3,444 (3.8)
	초과급여	202 (2.7)	200 (-0.9)	208 (3.7)	220 (5.7)	220 (5.7)	222 (5.9)	227 (3.3)
	특별급여	490 (-2.8)	441 (-9.9)	504 (14.3)	556 (10.4)	556 (10.4)	973 (-1.9)	540 (-2.9)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517 (6.2)	1,636 (7.8)	1,700 (3.9)	1,747 (2.8)	1,747 (2.8)	1,799 (2.6)	1,785 (2.2)	1,868 (3.8)
소비자물가지수	105.1 (0.4)	105.7 (0.5)	104.0 (2.5)	109.3 (5.1)	107.7 (5.1)	109.3 (5.0)	111.6 (3.6)	112.7 (3.1)
실질임금증가율	3.0	0.5	2.0	-0.2	-0.2	-1.9	-1.1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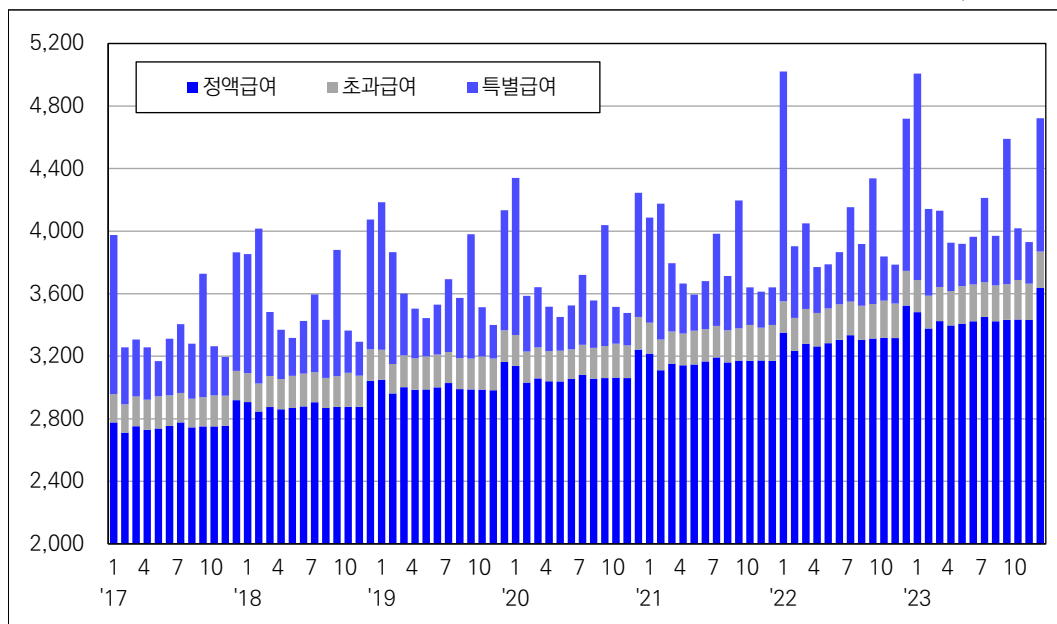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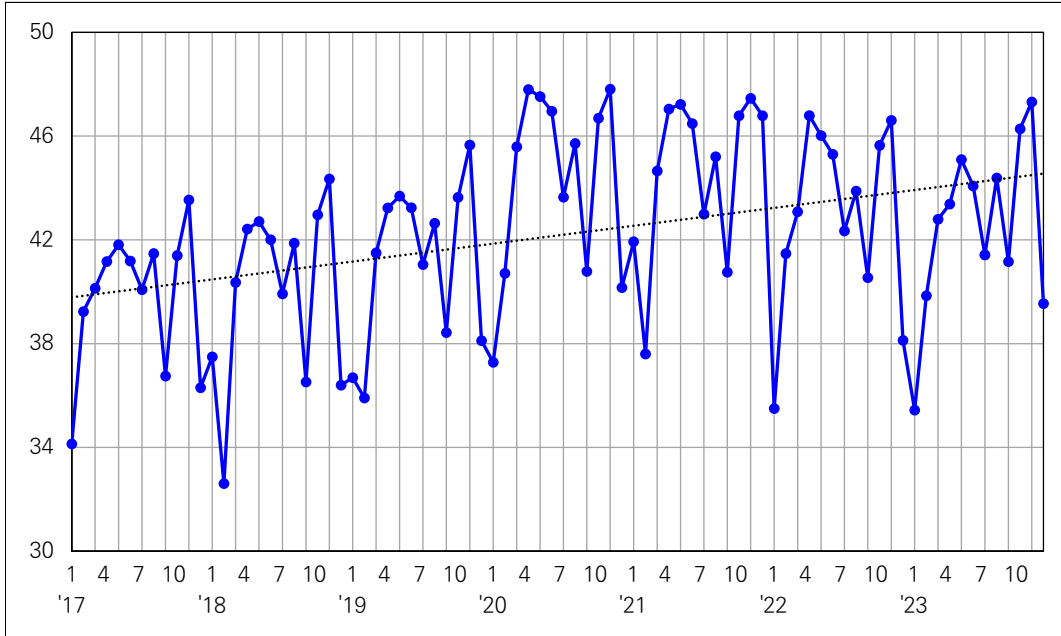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

(단위 : %, 상용근로자 임금=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3년 12월 대규모 사업체 전년동월대비 임금감소

○ 2023년 12월 중소기업(상용근로자 1~299인) 사업체의 임금은 393만 8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2% 상승, 대규모(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은 686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1% 하락함.²⁾

-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특별급여 감소 영향이 큼. 특히 대규모 사업체의 특별급여는 건설업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감소하였으며, 정보통신업(-27.4%), 운수 및 창고업(-21.3%) 등에서 감소폭이 컸음.
-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9.8%)·대규모 사업체(-16.8%) 모두 특별급여가 감소함. 중소기업 사업체의 특별급여는 감소로 전환(전년동월대비 -28.4%p)한 가운데 대규모 사업체는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이 둔화(16.2%p)됨.
- 중소기업 사업체의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4.1% 상승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0.5% 하락함.

2)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는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사업체 규모를 구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상용근로자가 1~299인, 대규모 사업체는 상용근로자 수 300인 이상 규모를 의미함.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천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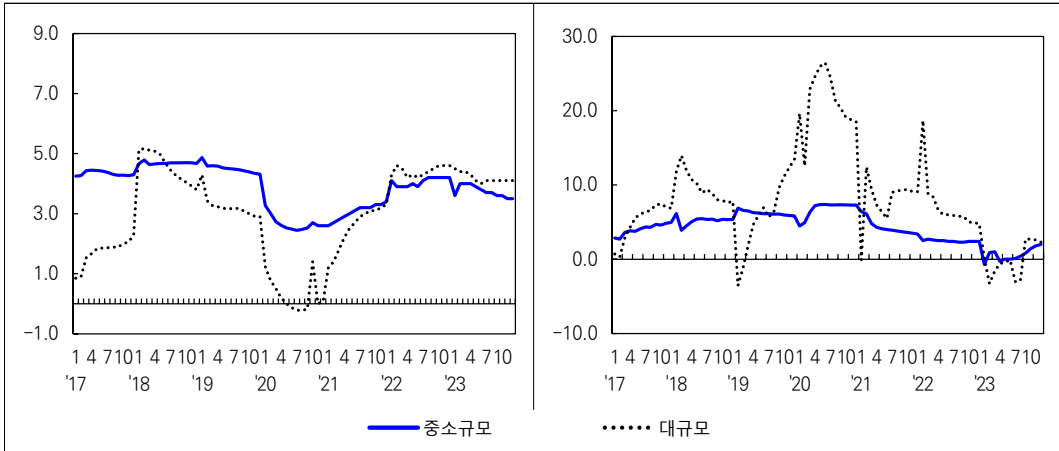
		2021	2022	2022		2023	
				1~12월	12월	1~12월	12월
중소 규모	소 계	3,316 (3.8)	3,462 (4.4)	3,462 (4.4)	3,930 (5.3)	3,537 (2.2)	3,938 (0.2)
	상용임금총액	3,510 (3.9)	3,675 (4.7)	3,675 (4.7)	4,200 (5.6)	3,767 (2.5)	4,210 (0.3)
	정액급여	3,012 (3.4)	3,139 (4.2)	3,139 (4.2)	3,296 (4.4)	3,249 (3.5)	3,392 (2.9)
	초과급여	176 (2.9)	186 (5.7)	186 (5.7)	190 (5.5)	187 (0.8)	195 (2.7)
	특별급여	322 (10.4)	350 (8.7)	350 (8.7)	714 (11.4)	331 (-5.3)	624 (-12.7)
	임시일용임금총액	1,671 (3.4)	1,711 (2.4)	1,711 (2.4)	1,757 (2.4)	1,746 (2.0)	1,828 (4.1)
대규모	소 계	5,582 (6.5)	5,922 (6.1)	5,922 (6.1)	6,939 (-3.5)	6,071 (2.5)	6,860 (-1.1)
	상용임금총액	5,687 (6.6)	6,049 (6.4)	6,049 (6.4)	7,100 (-3.6)	6,212 (2.7)	7,031 (-1.0)
	정액급여	3,973 (3.3)	4,155 (4.6)	4,155 (4.6)	4,569 (4.3)	4,325 (4.1)	4,734 (3.6)
	초과급여	357 (5.1)	377 (5.5)	377 (5.5)	370 (6.1)	406 (7.6)	411 (11.2)
	특별급여	1,357 (18.1)	1,516 (11.8)	1,516 (11.8)	2,161 (-18.0)	1,481 (-2.3)	1,885 (-12.8)
	임시일용임금총액	2,214 (9.1)	2,321 (4.8)	2,321 (4.8)	2,471 (4.3)	2,375 (2.3)	2,459 (-0.5)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주: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3년 연간 중소기업 · 대규모 사업체 임금은 특별급여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 2.5% 상승에 그침

◆ 2023년 12월 근로자 1인당 산업별 임금상승률은 편차가 큼

○ 2023년 12월 숙박 및 음식점업(6.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5.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4.1%) 부문에서 전년동월대비 임금이 증가한 반면,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2.5%), 운수 및 창고업(-5.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5.6%) 등에서는 전년동월대비 감소함.

－ 전년동월대비 임금이 감소한 산업들은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 감소가 상대적으로 컸던 산업들로 나타남(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의 특별급여(-35.0%), 운수 및 창고업의 특별급여(-24.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특별급여(-33.0%).

○ 2023년 12월 임금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934만 3천 원)이고, 임금총액이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18만 4천 원)으로 나타남.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 천 원, %)

	2021	2022	2022		2023	
			1~12월	12월	1~12월	12월
전 산업	3,689(4.6)	3,869(4.9)	3,869(4.9)	4,434(3.0)	3,966(2.5)	4,433(0.0)
광업	4,415(2.1)	4,608(4.4)	4,608(4.4)	4,922(7.7)	4,636(0.6)	4,680(-4.9)
제조업	4,239(6.2)	4,484(5.8)	4,484(5.8)	5,236(-0.7)	4,633(3.3)	5,249(0.2)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753(0.3)	6,907(2.3)	6,907(2.3)	9,302(4.4)	7,188(4.1)	8,135(-12.5)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4,094(5.3)	4,168(1.8)	4,168(1.8)	5,329(1.0)	4,297(3.1)	5,222(-2.0)
건설업	3,106(2.4)	3,229(4.0)	3,229(4.0)	3,419(2.8)	3,359(4.0)	3,496(2.2)
도매 및 소매업	3,551(3.7)	3,773(6.3)	3,773(6.3)	4,433(8.8)	3,921(3.9)	4,381(-1.2)
운수 및 창고업	3,795(7.5)	4,040(6.5)	4,040(6.5)	5,277(6.0)	4,185(3.6)	4,975(-5.7)
숙박 및 음식점업	1,905(1.4)	2,004(5.2)	2,004(5.2)	2,060(2.7)	2,097(4.7)	2,184(6.0)
정보통신업	4,796(4.0)	4,999(4.2)	4,999(4.2)	5,694(7.6)	5,120(2.4)	5,808(2.0)
금융 및 보험업	6,963(6.7)	7,324(5.2)	7,324(5.2)	9,268(8.2)	7,338(0.2)	9,343(0.8)
부동산업	2,954(3.7)	3,086(4.5)	3,086(4.5)	3,359(1.9)	3,117(1.0)	3,266(-2.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106(4.8)	5,376(5.3)	5,376(5.3)	6,560(1.6)	5,464(1.6)	6,473(-1.3)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492(3.4)	2,584(3.7)	2,584(3.7)	2,811(4.0)	2,687(4.0)	2,926(4.1)
교육서비스업	3,355(-0.3)	3,435(2.4)	3,435(2.4)	3,426(3.6)	3,508(2.1)	3,446(0.6)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14(2.5)	3,122(3.6)	3,122(3.6)	3,256(2.9)	3,132(0.3)	3,269(0.4)
여가 관련 서비스업	2,994(4.2)	3,077(2.8)	3,077(2.8)	3,502(3.7)	3,058(-0.6)	3,305(-5.6)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700(5.4)	2,832(4.9)	2,832(4.9)	3,037(5.3)	3,009(6.2)	3,206(5.6)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3년 임금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 정보통신업, 협회, 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전년대비 임금상승폭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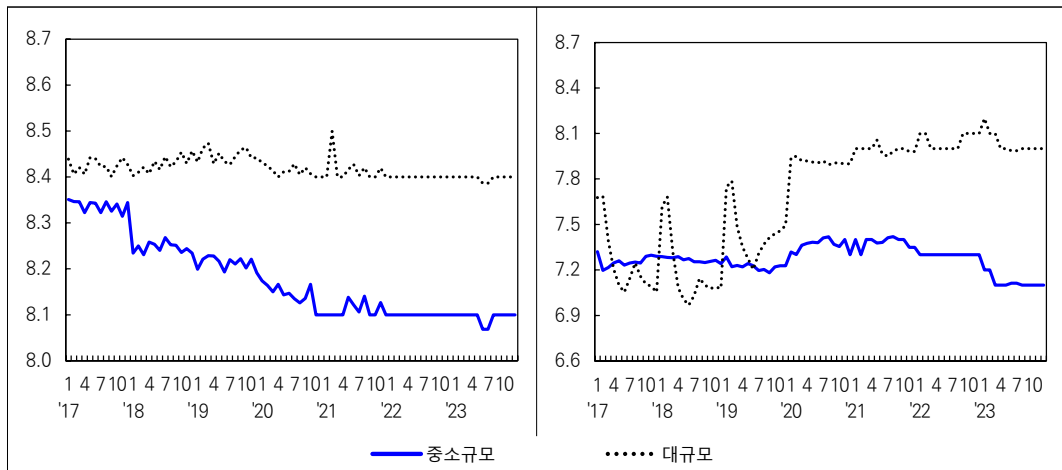
○ 2023년 임금상승폭이 가장 컸던 산업은 협회, 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6.2%)이며,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4.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4.1%) 순으로 나타난 반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0.6%)의 임금은 전년대비 감소함.

◆ 2023년 1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은 152.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3.8시간 감소(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대비 2일 감소)

- 2023년 12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9.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3.9시간 감소,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90.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9.4시간 감소함.
 -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이며, 전년동월대비 근로일수가 감소한 영향이 큼.
 -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는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임시일용근로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임.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단위 : 시간/일)



주 :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시간을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3년 12월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을 보면, 중소기업은 152.2시간으로 전년 동월대비 14.3시간 감소, 대규모 사업체는 156.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1.0시간 감소함.
- －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근로시간 감소가 가장 컸던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나타남.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21	2022	2022		2023	
				1~12월	12월	1~12월	12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60.3(0.1)	158.3(-1.2)	158.3(-1.2)	166.5(-3.4)	155.3(-1.9)	152.2(-8.6)
	상용 총근로시간	167.8(0.1)	165.9(-1.1)	165.9(-1.1)	175.0(-3.4)	164.0(-1.1)	160.4(-8.3)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0.1(0.2)	158.2(-1.2)	158.2(-1.2)	167.4(-3.6)	156.7(-0.9)	153.0(-8.6)
	상용 초과근로시간	7.7(-1.3)	7.7(0.0)	7.7(0.0)	7.6(0.0)	7.3(-5.2)	7.4(-2.6)
	임시일용 근로시간	97.4(1.4)	96.4(-1.0)	96.4(-1.0)	98.0(-2.6)	88.2(-8.5)	88.5(-9.7)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2.3(-0.3)	160.4(-1.2)	160.4(-1.2)	167.0(-3.1)	160.5(0.1)	156.0(-6.6)
	상용 총근로시간	163.4(-0.3)	161.7(-1.0)	161.7(-1.0)	168.5(-3.0)	162.1(0.2)	157.5(-6.5)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2.3(-0.5)	150.6(-1.1)	150.6(-1.1)	158.1(-3.2)	150.9(0.2)	146.5(-7.3)
	상용 초과근로시간	11.1(1.8)	11.0(-0.9)	11.0(-0.9)	10.4(-1.0)	11.2(1.8)	11.0(5.8)
	임시일용 근로시간	127.9(2.2)	125.0(-2.3)	124.9(-2.2)	129.4(-1.7)	117.5(-5.9)	121.1(-6.4)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3년 12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근로일수 감소 영향으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

- 2023년 12월 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한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9.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6%), 도매 및 소매업(-9.1%) 순으로 나타남.
- 2023년 12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광업(168.5시간),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168.0시간), 제조업(167.1시간)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27.2시간)임.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21	2022	2022		2023	
			1~12월	12월	1~12월	12월
전 산업	160.7 (0.1)	158.7(-1.2)	158.7(-1.2)	166.6(-3.4)	156.2(-1.6)	152.8(-8.3)
광업	179.9(-0.7)	174.8(-2.8)	174.8(-2.8)	181.7(-5.5)	168.5(-3.6)	168.5(-7.3)
제조업	173.5(0.5)	171.1(-1.4)	171.1(-1.4)	180.2(-3.1)	170.5(-0.4)	167.1(-7.3)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1.6(-1.3)	158.6(-1.9)	158.6(-1.9)	166.4(-1.8)	160.0(0.9)	161.0(-3.2)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176.9(0.2)	174.4(-1.4)	174.4(-1.4)	183.3(-4.4)	170.0(-2.5)	168.0(-8.3)
건설업	135.9(-0.7)	134.3(-1.2)	134.3(-1.2)	139.1(-4.4)	128.7(-4.2)	127.2(-8.6)
도매 및 소매업	163.8(0.0)	162.3(-0.9)	162.3(-0.9)	170.5(-3.0)	159.2(-1.9)	155.0(-9.1)
운수 및 창고업	160.2(0.8)	160.6(0.2)	160.6(0.2)	168.9(-1.0)	160.6(0.0)	158.4(-6.2)
숙박 및 음식점업	148.4(-0.9)	146.5(-1.3)	146.5(-1.3)	151.2(-3.6)	138.8(-5.3)	138.0(-8.7)
정보통신업	164.1(0.2)	162.7(-0.9)	162.7(-0.9)	169.4(-4.1)	162.2(-0.3)	156.7(-7.5)
금융 및 보험업	161.9(-0.1)	159.8(-1.3)	159.8(-1.3)	169.0(-4.0)	159.3(-0.3)	152.4(-9.8)
부동산업	171.8(-0.8)	169.4(-1.4)	169.4(-1.4)	177.7(-2.7)	167.5(-1.1)	165.5(-6.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1.6(-0.1)	160.3(-0.8)	160.3(-0.8)	167.9(-3.5)	158.8(-0.9)	152.8(-9.0)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62.1(0.2)	159.8(-1.4)	159.8(-1.4)	168.0(-3.4)	158.2(-1.0)	155.5(-7.4)
교육서비스업	137.2(0.4)	136.1(-0.8)	136.1(-0.8)	144.1(-3.0)	135.9(-0.1)	131.7(-8.6)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8.3(-0.2)	155.3(-1.9)	155.3(-1.9)	163.6(-4.3)	150.7(-3.0)	147.9(-9.6)
여가 관련 서비스업	152.7(2.0)	150.8(-1.2)	150.8(-1.2)	155.7(-3.3)	148.2(-1.7)	142.9(-8.2)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2.4(1.3)	160.3(-1.3)	160.3(-1.3)	170.1(-3.1)	160.3(0.0)	158.3(-6.9)

주: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3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2시간으로 전년대비 2.5시간 감소

○ 2023년 근로일수 감소와 근로시간이 짧은 산업에서 근로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2시간으로 전년대비 2.5시간 감소함.

- 2023년 근로시간의 감소는 연간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대비 1일 감소한 데다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자가 증가한 영향이 큼.

◆ 2023년 산업별 근로시간은 근로일수 감소 영향으로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운수 및 창고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전년대비 감소

○ 2023년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제조업(170.5시간),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170.0시간) 순이며, 근로시간이 짧은 산업은 건설업(128.7시간), 교육서비스업(135.9시간) 순으로 나타남.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4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18건
 - － 2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3건)보다 15건 많은 수치임.
- 2024년 2월 조정성립률 50.0%
 - － 2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16.7%보다 33.3%p 높은 수치임.

〈표 1〉 2023년, 2024년 2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4. 2	18	13	6	3	3	6	2	4	0	1	5	50.0%
2023. 2	3	7	1	1	0	5	5	0	1	0	3	16.7%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중재사건

- 2024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중재사건 건수는 0건
 - － 2월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6건)보다 낮은 수치임.
 -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건수는 0건임.

〈표 2〉 2023년, 2024년 2월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진행 중
		소계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2024. 2	1	1	1	0	0	0
2023. 2	6	0	0	0	0	7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2024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946건
 - 2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140건)보다 806건 적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8.1%(110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71.9%(281건)를 차지함.

〈표 3〉 2023년, 2024년 2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4. 2	946	391	89	21	197	7	40	37	555
2023. 2	140	134	40	9	47	8	10	20	442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4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12건
 - 2월 복수노조사건¹⁾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6건)보다 6건 적은 수치임.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40.0%(2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60.0%(3건)를 차지함.

〈표 4〉 2021년, 2023년 2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4. 2	12	5	1	1	2	1	0	0	7
2023. 2	6	1	1	0	0	0	0	0	13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1) 복수노조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 금속노조 ‘회계 공시 거부’ 결정

- 2월 28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회계 공시 거부와 윤석열 정부 노조탄압 대응 투쟁 결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다음 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어지는 2023년도 회계 결산 결과 공시에 응하지 않을 예정이다.
- 금속노조는 이날 대의원 대회 결정으로 조합원들이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감수한 채, 정부가 요구하는 회계 공시를 거부하기로 한 것이다.
- 자동차·조선 산업 노동자 등이 속한 금속노조의 조합원 수는 18만 3천여 명으로 민주노총 산업별 노조 가운데 두 번째로 규모가 큼.
-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2023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합원 1천 명 이상 개별 노조, 총연맹이나 산별노조 등은 정부가 만든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입력해야 함.
- 개별 노조 또는 상급단체 중 한 곳이라도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소속된 조합원은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유·사산 경험 노동자 70% “단축 근무 못했다”

- 2월 1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 연구: 유산·사산을 중심으로』를 보면, 유·사산을 경험한 여성 노동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8.47시간으로 나타났다.
- ‘유·사산 당시의 업무가 임신 유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 9.2%, ‘그렇다’가 42.3%로 전체의 51.5%가 업무가 임신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봤음.
- 노동시간이 길수록 ‘업무가 임신 유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높아졌음. ‘업무가 임신 유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는지’ 묻는 말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이들의 노동시간은 9.38시간이었고 ‘그렇다’는 8.80시간, ‘그렇지 않다’는 8.12시간, ‘전혀 그렇지 않다’는 7.55시간이었음.
- 법이 보장하는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기도 어려웠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응답자 72.1%가 유·사산 당시 ‘회사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었다’고 했음.
- 근로기준법은 임신기에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제한하지만, ‘업무가 유·사산과 연관성이 있다’에 ‘매우 그렇다’고 답한 여성 노동자 중 50.9%는 연장근무를 ‘자주’ 혹은 ‘항상’ 했다고 응답했음.

◆ 국민 10명 중 7명 “산업안전보건청 필요”

- 2월 26일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는 전국 만 17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공약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 결과 응답자 66.7%가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항목을 선택했음.
- ‘산업안전보건청이 설립돼도 중대재해가 감소되지 않을 것 같아 청 설립이 불필요하다’는 항목을 지목한 이들은 24.3%에 불과했음.
- 응답자 82.7%는 우리나라 산재가 심각하다고 봤고 이는 2023년 조사(78.7%)보다 높은 수치임.
- 산재예방을 위한 방안으로는 정부 출연금 확대가 54.8%로 가장 많았고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는 답이 17.7%, 경제가 어려운 때이니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 출연금도 감소돼야 한다는 답이 16.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8%였음.
- 올해 총선에서 산재와 직업병 관련 문제가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이들은 77.9%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5.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9%였음.

◆ 삼성 전자계열사 노동자, 수면장애 경험 평균의 4~5배

- 3월 4일 전국금속노조, 전국삼성전자노조 등은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삼성전자판매 △삼성SDI 등 4개사 노동자 1,801명을 대상으로 ‘삼성-전자계열사 노동안전 보건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 보고서는 수면장애를 경험한 노동자 비율이 삼성전자 65%, 삼성전자서비스 72%, 삼성SDI 77%, 삼성전자판매 68% 등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음.
- 2020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제6차 근로환경조사에서 수면장애 경험 비율이 15%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심각한 수치로, 제조 생산직 중심의 교대 근무, 높은 노동강도 등이 수면장애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임.
- ‘최근 1년간 아프지만 일단 출근했다’는 응답 비율은 삼성SDI 64.5%, 삼성전자판매 77.7%, 삼성전자서비스 78.7%로 나타났고 제조 생산직군만 떼어 보면 64.4%였음.
- 일부 계열사는 업무 특성과 맞물려 ‘근골격계 유증상자’ 비율이 높았음. 휴대폰부터 텔레비전, 냉장고까지 각종 전자제품 수리·보수를 맡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93.1%, 전자제품을 유통하는 삼성전자판매 노동자들은 92.5%가 근골격계 증상을 겪었음.
- 보고서는 "인간공학적 작업 환경 개선뿐 아니라 2인 1조 작업 등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적정인력 충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함.

◆ 10명 중 7명 “노동위 취약계층 구제 강화해야”

- 2월 1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반인과 위원·조사관 대상으로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음.
- 설문조사에 응한 일반인과 조사관은 노동위원회가 취약계층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음. 일반인과 위원·조사관은 각 72.5%, 74.8%가 취약계층 권리 구제 강화에 동의했음.
-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직장이동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본 위원·조사관은 80.8%로 일반인보다 높았음.
- 채용, 퇴직, 근로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에는 일반인 약 80%가 동의했고 조사관은 92.7%가 동의해 가장 높았음.
- 일반인 응답자 43.3%가 직장 내 갈등 중 ‘MZ세대와의 갈등’이 가장 많아질 것이라고 꼽았고 해고·징계는 30.6%로 뒤를 이었음.
- 위원·조사관의 경우 MZ세대와의 갈등(35.5%), 직장 내 괴롭힘(31.9%), 해고·징계(28.6%) 순으로 나타났음.

◆ 국가공무원 10명 중 6명 “초과근무 총량제로 초과수당 못 받아”

- 2월 28일 공무원노조 직능본부에 따르면 2023년 말 조합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초과근무 총량제로 인해 실제 근무하고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64.8%였음.
- 초과근무 총량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88%에 달했고 권장연가일수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1.9%였음.
- 조합원 절반 이상(59.4%)이 노조가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에 나선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음.
- 초과근무 총량제는 부처별로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총량을 부여하고, 일정 수준(10~30%) 유보분을 제외한 뒤 과별 배분된 시간 내에서 부서장이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하는 제도임.
- 권장연가 일수 제도는 평균 15일 이상 연가를 권장하고 이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임.

◆ 직장인들 “저출생 해법은 부부 육아휴직 의무화”

- 2월 25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2023년 12월 4~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하였음.
- 저출생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20.1%)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8.2%), ‘임신·출산·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16.7%),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 제도 확대’(15.2%) 등이 뒤를 이었음.
-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여성은 현금성 지원 확대보다는 불이익 사업주 처벌 강화(21.1%), 일·육아 병행 제도 확대(17.9%) 등의 정책을 남성보다 더 선호했고 특히 불이익 사업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성 응답은 남성(13.3%)보다 7.8%포인트 높았음.
- 남성은 현금성 지원 확대(19.6%), 주거 인프라 확대(12.4%) 등의 정책을 여성보다 더 선호했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현금성 지원 확대(22.7%)와 사업주 처벌 강화(19.9%) 응답이, 30·40대는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27.1%, 22.3%)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육아휴직 경험 남성 1,720명 중 85.1%가 정규직

- 3월 6일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격차와 차별’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형태에 따른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정규직 85.1%, 무기계약직 12.8%, 비정규직 2.1% 순으로 나타났음.
- 정규직 남성 노동자는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높았다가 월 가구 소득 700만 원 이상부터 감소했음.
- 월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9%, 300만~400만 원 미만 20.4%, 400만~500만 원 26.4%, 500만~700만 원 미만 30.2%, 700만~1천만 원 미만 12.9%, 1천만 원 이상 4.1%였음.
-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은 같은 소득 구간별 육아휴직 사용률에서 300만 원 미만 6.6%, 300만~400만 원 미만 13.3%, 400만~500만 원 미만 42.6%, 500만~700만 원 미만 35.5%, 700만~1천만 원 미만 2%였음.
- 고용형태로 살펴보면 정규직 남성 노동자 육아휴직 기간은 7~12개월이 32.9%로 가장 높았지만 1~3개월과 4~7개월은 각각 31.3%, 27.8%로 큰 차이가 없었고 12개월 초과는 8%임.
- 반면 비정규직 남성 노동자 육아휴직 기간은 1~3개월이 56.6%로, 4~6개월 31.3%, 7~12개월은 6.6%로, 12개월 초과는 5.5%로 나타났음.

◆ **돌봄노동자 월 급여, 전체 임금노동자의 42.5% 수준**

- 2월 23일 민주노동연구원의 '사회복지·돌봄 노동자의 노동 실태와 노동조합 인식' 이슈 페이퍼를 발간하였음.
-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19.75일(114.03시간) 일하는데 월 급여총액은 154만 원에 불과함.
- 같은 통계자료에서 조사된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 월 급여총액 362만 원과 비교했을 때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는 3분의 2 수준이고,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임.
- 사회복지직의 경우 월 소정근로일수가 여성(19.95일)보다 적은 남성(19.63일)의 월 급여총액은 281만 4천 원으로, 215만 3천 원인 여성보다 많고 돌봄직의 경우 노동시간·임금 모두 남성이 여성 평균보다 높음.
- 월 소정실근로일수는 남성과 여성 각각 20.04일, 19.73일로 0.31일 차이가 나지만, 월 급여총액은 각각 205만 6천 원, 149만 2천 원으로 56만 4천 원의 격차가 발생했음.
- 노조 가입률은 사회복지직 1.2%, 돌봄직 4.2%로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를 성별로 보면 양 직종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가입률이 높았음.
- 사회복지직의 경우 각각 2.9%, 1%이고, 돌봄직의 경우 7.8%, 3.9%였음.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경력이 5년 이상으로 길수록 노조가입률도 높았음.
- 이슈페이퍼는 고용노동부의 '2022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와 돌봄·보건서비스 종사자의 임금, 노동시간, 노조 가입률 등을 집계했음.

◆ **여성 노동자 10명 중 7명 월급 250만 원보다 적어**

- 3월 4일 '2024년 3·8여성파업 조직위원회'는 여성노동 실태조사 보고 결과를 발표했다.
- 응답자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이 44.30%, 정규직이 43.87%였고 연령대는 50대(29.29%), 40대(27.13%), 30대(24.53%) 순으로 많았음.
- 업종은 서비스 종사자가 24.24%로 가장 많았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9.05%), 사무 종사자(18.33%), 단순 노무 종사자(17.32%)가 뒤를 이었음.
- 250만 원 이내 월급을 받는다는 답은 70.71%였고 최저임금(월 환산 206만 740원)에서 250만 원 사이가 26.41%로 가장 많았음.
- 주당 노동시간과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을 분석한 결과, 주당 40시간 일하는 노동자(309명) 중 가사·돌봄노동 시간까지 합하면 주 54시간 이상 일하는 여성이 69.9%(269명)에 달했고 주 68시간 노동하는 경우도 12.6%(49명)에 이르렀음.

-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42명) 중 가사·돌봄노동 시간을 합하면 73시간 이상 일하는 여성이 28.5%(12명)로 나타났다.
- 여성 노동자 10명 중 8명(78.3%)이 '여성이라서 저임금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음.
- 저임금 원인으로 '사회와 기업이 여성노동 가치를 낮게 평가해서' 76.21%, '비정규직 등 여성들이 일하는 일자리가 더 불안정해서' 55.61%, '가사나 육아, 가족 돌봄을 주로 여성이 하다 보니 경력이 끊겨서' 37.58% 등이 복수 응답으로 꼽혔음.
- 해결방안으로 '생활임금 수준 최저임금 인상'(37.06%)이 1순위로 두드러지게 높았음. '정규직·전일제 등 좋은 일자리 확대'가 1순위(23.63%)와 2순위(24.03%)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함. 3순위로는 '경력단절 해소 공공정책 강화'(23.83%)가 높았음.
- 무급 가사·돌봄 문제와 관련 여성 노동자 대다수(80.9%)는 국가의 가사돌봄 서비스 강화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음.
- 실태조사는 2023년 12월 20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7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이 중 유효 응답자 693명을 분석했음.

(조규준,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